**‘다시, 집을 순례하다’**나카무라 요시후미 지음 / 정 영희 옮김

1302037이 영한

저는 건축에 관한 책들이 항상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이해 못하면 어떻하지 라는 불안감을 안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순례하다의 책은 건축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도 건축가가 어렵게 풀이를 한 다른 책보다는 보다 더 쉽게 책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 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에 대해서 저자 자신의 견해 그리고 건축가들이 왜 이 공간을 설계했으며 실제 건축가들이 설계한 집에 사는 거주자들에게도 인터뷰를 하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앞서 비전공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듯이 건축 전공자들의 설계도와 배치도를 보여주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계도와 배치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 소개 되어있는 건축물 중에 제 맘에 든 건축물 몇 가지를 주제로 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피에르 샤로에 <메종 드 베르>라는 건축물입니다. 프랑스 생 제르맹 데 프레 근처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피에르 샤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가구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서로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구 디자인의 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보여 주었 을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건축을 접했는지 또한 알아야하는 할 꺼 같았습니다. 먼저 그는 네덜란드 건축가 B. 베이포트를 만나면서 함께 <메종 드 베르>의 건축물을 작업하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피에르 샤로가 <메종 드 베르>를 설계할 때 빛, 동선을 많이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 번 째로 빛 그 중에도 채광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광을 그대로 살리면서 실내 구석까지 효과적으로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실내에 충만한 자연광의 아름다움은 ‘빛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책을 읽는 내내 그의 건물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샤로는 낮 뿐만이 아닌 밤에도 빛이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빛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밤에도 빛이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조명기구를 설치 했습니다. 샤로가 <빛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네바다형 유리렌즈 덕분입니다. 그는 채광을 살리면서 예술적인 렌즈를 찾기 위해서 한쪽 면을 갈아 가공한 두꺼운 렌즈를 실험했는데 완벽하게 맘에 들지 않아서 네바다형 유리렌즈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유리렌즈 하나가 모눈종이처럼 보여 커다란 모눈종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에 대한 많은 실험을 통해 지금의 메종 드 베르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동선입니다. <메종 드 베르>는 병원 겸용 주택이면서 동시에 드나드는 손님이 많은 사교계의 살롱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완벽한 동선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계단의 위치가 완벽하게 배치 되어있습니다. 집의 평면도를 보면 계단에 위치가 필요한 위치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에 공존하고 있으며 사진을 보면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습니다.

<메종 드 베르>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인 빛에 대한 건축을 했습니다. 저 또한 채광을 통한 아름다움을 건축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종 드 베르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지 않은 네바다형 유리렌즈를 채용해 실내로 들어오는 채광의 범위를 넓혔으며 또한 이를 이용해 모눈종이처럼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와 수학적인 느낌과 그 당시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건물에 비해 유행에 따라가지 않은 디자인 적인 특별함과 개성을 추구했다. 그리고 동선에 대한 세심하고 완벽하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공유되는 주택이라는 건축물에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동선을 이용하여 사적인 것을 지키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적인 공간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다른 계단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흔히 계단을 보면 위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보지만 메종 드 베르에서는 동선에 많이 방해되는 계단에 위치를 완벽하게 배치해서 미적인 요소와 사용하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맘에 들었습니다. 결국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편안함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에르 샤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미적인 효과까지 가미하여 완벽한 주택을 만들었다고 생각 됩니다.

두 번째로 멕시코시티 타쿠바야에 있는 루이스 바라간의 집입니다. 여기서도 이 책에 대한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들이 보기에는 이 건축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순례 하다 의 책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물이 나왔다 라는 것을 쉽게 표현을 해서 보다 더 많은 건축가들의 건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건축가들 각자 개인개인의 특징이나 그가 추구하는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루이스 바라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 쉽게 건물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바라간에 집에서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바라간은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지 공간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에 집은 공간이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간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간에 집은 전체라는 느낌도 한 지붕 아래에서의 생활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책에서 저자가 옴니버스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간은 집에서 평온감,침묵,추억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 안에는 평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으며 그에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가구들도 많습니다. 바라간은 색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 내부에 그림이나 벽면,지붕,문 등에서도 그에 색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색이란 빛이기도 합니다. 건물 속 깊게 끌어들인 자연광의 아름다움 태양의 운행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풍부한 색채감은 바라간의 집에 특징입니다.

제가 루이스 바라간에 집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집에서 평온감을 찾을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 해야 하며 안정을 찾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 바라간은 이에 대해서 색채감과 자연광에 채광을 이용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색채감과 유명한 전화기가 있는 코너 등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지만 저는 그가 집에서 찾은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침묵과 추억이라는 관점이 맘에 들었습니다.

위에 내용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택 즉 사람이 사는 집은 사람이 직접 살아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관도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이 편하며 안전하며 만족감과 그 안에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주택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건축이자 위에 있는 두 건축물에서 느낀 것입니다. 제가 이번 과제를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그 누구라도 건축을 쉽게 접근하며 어려운 점을 쉽게 풀어주며 직접 가보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도와주고 평면도나 많은 사진 그림을 통하여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건축물과 건축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제가 하고 싶은 건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아닌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를 알고 이유를 알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